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배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인 파주놀이구름 준공식에 참석해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배움”이라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각 시군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모 경쟁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1등을 했다”며 “결국 파주시 최종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기획력 행정력이 바로 오늘 놀이공간으로 실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이 지사는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배움”이라며 “앞으로 이 공간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파주 유비파크 체력관에서 열린 파주놀이구름 준공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윤희덕·박정 국회의원, 김명중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파주놀이구름은 지난해 ‘새로운 경기 First 정책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해 경기도로부터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경기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의 일환이다. 파주시 와석순환로에 4,697㎡ 규모로 조성되는 파주놀이구름은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으로 EBS 캐릭터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본관동과 2개의 부속동으로 펜스, 번개맨, 뽀빠이 등 EBS 캐릭터를 접목해 하늘언덕, 구름우물, 무지개동굴, 환상의 숲, 바람골짜기, 모험의 세상, 반딧불이길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날을 맞아 어떤 휘황찬란한 정책 약속보다 어린이들의 마음을 함부로 넘겨지지 않겠다는 다짐부터 드리고 싶다”며 “코로나로 학교에 잘 가지 못하고 유튜브로 세상을 접하는 여러분의 일상과 정서는 어떻게, 열심히 역지사지 상상도 해보고 직접 듣기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정치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속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대리인의 기본 자세”라며 “하물며 아이들의 마음도 바다와 같은데 민심은 어떻게. 98번째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어린이의 마음도 어른의 마음도 부단히 살피겠다는 다짐을 올리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태안 해양치유센터, 10월 착공 목표 준비 ‘착착’

테라피 시설, 기능성 풀, 스포츠 재활센터, 숙소로 구성

태안군이 서해안 유일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일 군에 따르면, 태안군 남면 달산리 955-39번지 일원에 국비 포함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8570㎡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태안 해양

치유센터를 올해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기존 본관동과 부속동으로 나뉘던 건물 설계를 단일건물로 변경하고 다양한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한 테라피 시설과 기능성 풀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우선, 해수마사지를 할 수 있는 어퓨전사위, 냉온수욕은 물론 몸과 마음

을 치유하는 독일 자연치유요법인 크나이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해염 마사지 시설인 솔트인 헤일, 다양한 허브 및 약초를 활용한 허벌리스트, 피부 및 두피 미용 시설인 페이스 앤 스킨케어 등과 함께 스포츠 재활센터, 숙소, 푸드코트, 카페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를 고려한 휴게공간인 옥상정원, 가족 및 그룹단위 이용자들을 위한 다목적 녹음 휴게마당인 패밀리 가든을 비롯해 태안의 자생식물을 활용한

보타너 가든이 포함된다.

이에, 군은 태안의 특색 있는 치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 체류형 관광 유도 등을 개발전략으로 삼아 태안을 ‘전국 최고의 해양치유 메카’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태안을 미래 해양 치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충주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제품가격의 10~20% 부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충주시가 오는 6월 19일까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장애 유형,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116개 제품이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의 90%가 지원된다.

신청자는 서류심사, 중복수혜, 심층 방문상담, 전문가평가를 거쳐 7

월 16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기는 개인부담금(10~20%) 납부 후 보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 직접 신청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충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철우 기자

경남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설치 본격 추진

광역특별연합 설치 준비 과제, 3개 시도 공동 이행

부산, 울산, 경남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부울경 지자체는 광역특별연합 설치에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자치단체장간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광역특별연합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우선, 부울경이 공동으로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준비하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합동추진단은 광역특별연합 사무발굴, 규약 제정 등 광역특별연합 설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준비하게 된다.

내달 초 울산에서 광역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설치에 관한 부울경 시도 주무과장 회의를 개최하며 이날 회의에서 합동추진단 조직규모, 부단장

임명, 사무소 위치 등 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 전반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추진단 부단장 임명, 사무소 위치 등 쟁점사항은 그동안 부울경 시도간 논의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 여건과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합동추진단은 오는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광역특별연합 의회 구성과 집행기관의 장 선출, 의회와 집행기관의 규모 등 조직 구성과 광역특별연합 사무 선정, 사무소 위치 등 다양한 과제를 이행하게 되며, 광역특별연합 출범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메가시티 추진기구인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부울경 시도가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단양군, 안심관광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관광1번지 단양군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심관광 전략을 강화해 침체된 지역 관광업에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나선다. 지난 2일 군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부내륙힐링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4인 이하 소규모 그룹 체험이 가능한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 상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단체 관광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3일(밀집, 밀집, 밀폐)을 피해 안전하게 체험여행이 가능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상품을 발굴·지원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공모 대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판매와 운영이 가능한 당일 또는 반나절 체험관광 상품이다.

여행상품 선정 시 인터파크, 마이리얼트립, 프림 등 여행상품 플랫폼에 입점되며 상품 가격(정상가의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군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다운 받아 메일(jbt2021@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품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관리단 자작 문화학교에서 운영 능력, 상품 경쟁력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품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안전 여행을 모토로 미션 수행을 완료하는 관광객들에게 소정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단양오고(5GO) 미션투어 사업’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특히, 관광산업 분야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내 안심관광을 위한 신규사업의 지속 발굴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철식 기자

세종시 가로수, 싱그러움 녹음 선사

시민감동특위 2호 과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7,000그루 교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꾸준한 가로수 관리가 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음을 선사하고 있다.

시는 시민감동특위 2호 과제인 지난해 봄·가을 관내 10곳의 가로수 7,000여 그루를 교체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생육불량 개선을 위해 전문가·시민의견을 반영해 가로수 교체 시 토양개량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한누리대로(BRT 도로)에 식재됐지만 생육이 불량했던 청단풍의 경우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삼각단풍으로 수종교체했으며, 이후 안정적인 활착과 싱그러움 봄철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심 경관개선을 위해 세종정사, 시청 주변 일부 지역에 무궁화·아로니아 대형화분 200개도 설치해 주변 가로수와 어우러져 녹음이 가득 찬 가로환경을 조성했다.

이규범 시 산림공원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인주예정지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주 받아 세종시 가로수 조기 활착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맹정호 서산시장

‘대산항 인입철도’ 건립 위해 동분서주

국토부 방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



맹정호 서산시장이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대산항 인입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는 6월 고시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최종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이날 김선태 철도국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사항들과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대산항 인입철도는 서산 대산항에서 당진 석문산단까지 17.3km(단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됐다.

‘대산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인근 장항선, 서해선 등과 연결, 전 국토물동량 수송이 가능해져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날 맹 시장은 “대산항은 전국 무역항 중 화물처리 6위, 유류화물

3위로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63%(7만→12만TEU)나 증가하는 등 중부권 대표 무역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이자 70여 개 기업이 입주한 대산공단의 육상 교통수단은 국도가 유일해 물류수송비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체 교통수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물운송 사고로 인해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 환경오염과 시민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시장은 “대산항 인입철도 구간이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된 지 10년”이라며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성진 기자

전남도, 5월 온가족 안심 관광지로 캠핑장 추천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영암 국민여가 캠핑장 등 소개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속 가족 안심 관광지로서 글램핑과 캠핑장 가운데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 영암 국민여가 캠핑장, 해남 오토캠핑장을 5월 이달의 관광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북부에 위치한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은 알프스 목장을 연상시키는 캠핑장이다. 캠핑 장비 준비가 필수여서 캠핑에 익숙한 장비 마니아들에게 적합한 장소다.

가장 큰 매력은 금성산성으로 이어지는 명품산책로다.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고 살짝 욕심을 낸다면 2시간 정도 왕복하며 해맑은 공기와 함께 힐링할 수 있다.

캠핑 후에는 잠깐 시간을 내 담양 호와 용마루길, 죽녹원, 메타세콰이 아길, 추월산을 둘러보면 여행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풍부한 자연경관으로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식사 메뉴로 떡갈비, 대나무통밥 정식 등도 좋다.

장비 준비가 부담스러운 캠핑 초보엔 해남 땅끝오토캠핑장이 제격이다.

카라반 18대가 있으며, 내부에는 냉장고, TV, 전기레인지, 밥솥, 침대, 식기류, 에어컨, 이불 등 집처럼 물품이 준비돼 있다.

자가캠핑이 가능한 곳도 50개를 운영한다.

특히, 송호수욕장 근처에 위치해 일몰 감상이 가능하다.

남쪽 바다와 한반도 첫 땅이 만나 해남은 수려한 바다를 조망하며 야경을 즐길 수 있다.

캠핑 후 120여년 역사를 가진 목포 구들대, 예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우수영문화마을, 땅끝조각공원, 해양자연사박물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에 지리한 영암 국민여가캠핑장은 텐트 설치 장소를 골라 예약할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사색을 즐기고 밤에는 영암읍 야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국립공원 월출산 자락에 자리해 월출산국립공원 천황봉을 등반할 수 있다. 5시간 정도 걸리고, 좀 더 쉬운 코스로는 왕복 30분의 기상랜드, 왕복 3시간의 천황사 등이 있다. 기차랜드는 자연 풍경, 이색 박물관, 식당 등 자연친화적 체험·관람시설이 완비돼 가족, 친구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전남도의 월별 추천관광지 및 관광지의 상세 내용과 영상은 종합 관광정보시스템인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에서 볼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전남의 자연 속에서 안심 캠핑 여행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매 기자